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2년 11월 20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신명기 16장 13-17절

설교제목 :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의 구약적 기원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과 신명기 16장에 각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각각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절기를 다루지만 각각 강조하는 메시지는 각각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 추수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명기 16장의 초막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법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가나안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의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4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4계명의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4계명과 초막절의 의미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4계명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본문이 전달하려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계명과 초막절의 의미가 어떤 연관을 갖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규례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의 안식일 동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출20:11) 반면 신명기의 안식일 동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입니다.(신5:15)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 자유와 해방이 기초합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안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안식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한 안식에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너와 네 자녀들뿐만 아니라 네 남종과 여종과 네 소와 나귀나 모든 가축과 객이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신 5:14) 당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초막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신명기 16:14절의 말씀이 민수기 29장과 레위기 23장에는 없습니다. 오직 신명기 본문에만 있습니다. 왜 신명기 본문에만 이 규례가 있습니까? 신명기의 본문은 제 4계명의 상황적 적용의 차원에서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초막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첫째 이유가 이웃의 약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16-17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는 더 많은 가지고 와서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 감사의 의미입니다. 추수의 기쁨에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모퉁이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는 절기입니다. 어려운 자에게 나누면 더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서 꾸어주는 것입니다.(잠언19:17) 감사주일은 그래서 나눔입니다. 더불어 초막절의 둘째 의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15절) 그런데 본문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표현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기자는 정확한 지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누리야 합니다. 참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누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눅17:15-16) 그러자 예수님이 열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습시다. 감사는 참된 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결국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만나를 먹고, 고기가 없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했습시다. 결국 그들은 평생 광야의 삶을 살았습시다. 감사하면 참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과 동의어입니다. 가나안의 삶,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살전5:16-18) 감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임재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임재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온전한 즐거움 즉, 축제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답답하고 실패하고, 눈물만 나오는 인생이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온전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치유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똑같습시다. 주일에 예배가 한 주간의 축제라면, 감사절은 특별한 절기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기를 통해 온전한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초막절에 비추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봅시다.(14절)
- 2) 초막절에 비추어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봅시다.(15절)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한 해 동안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초막절 절기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